

2월4일

제목: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의 씨름 /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한 줄 요약: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야곱은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방식인 전략과 술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귀향을 알립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앞으로의 야곱의 거처가 불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에게 전갈을 보내어 자신의 상황을 전달합니다.<sup>1</sup>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모호했고 에서가 4백인을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은 도리어 야곱을 “심히 두렵고 답답”(32:7)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키셔야 한다는 설득조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재산을 나누어 먼저 보내는 등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이번 위기도 대처하려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나루터로 돌아온 그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97세로 야곱의 상대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기록하는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신체적으로 그 사람을 능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적인 씨름이 아닌 영적인 씨름으로 그 상대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야곱이 영적으로 굴복하려 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보다 그의 술수와 전략이 항상 먼저였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전환되는 지점은 그가 그 ‘남자’에게 축복을 받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sup>2</sup>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래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받은 야곱은 그가 어떤 복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생명이 보전될 것이며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받고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sup>3</sup> 이제야 야곱은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방식인 전략과 술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일을 마주하시든 문제 해결 방도를 고민하는 것보다 우릴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sup>1</sup> NIV 적용주석

<sup>2</sup> NICOT 창세기 p410

<sup>3</sup> NAC 창세기 2-케네기 매튜스(ocr) p716

2월11일

제목: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의 꿈 / 죄수에서 총리로

한 줄 요약: 요셉에게 거듭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보여주시는 첫 단추입니다. 이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39장부터 41장까지 세 장에 걸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 개인의 삶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스토리는 전체의 관점에서 스토리를 읽어보다 보면 요셉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 고난을 겪은 후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sup>4</sup> 결국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스토리 인 것 입니다.<sup>5</sup>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두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 이었습니다. 비슷한 꿈을 꾼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의 해몽처럼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형을 당하게 됩니다.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요셉을 잠깐 잊게 됩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바로 왕이 비슷한 꿈은 연속해서 꾸게 되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바로는 요셉을 불러 오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꿈이 연속되거나 둘이 한 쌍을 이루어 나타나는 경우는 그 꿈의 메시지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당시 해몽은 연구된 기숙과 비법에 숙련된 전문가들에게 의뢰되었는데 그들은 신들이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문가가 탐구할 때 신들이 지혜를 주어 꿈의 의미를 밝히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문서 중 어떤 것도 알지 못했고 그가 바로 앞에 불러나갔을 때에도 자신이 숙련된 전문가라는 것을 부인하고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을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구체적인 제안이 담긴 계획, 풍년기 7년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징수를 통해 거두어 흉년기에 나누어 주며 이를 관리할 명철하고 지혜있는 감독관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그의 제안은 바로가 신뢰할 만하고 받아들일만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살릴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에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보기에 요셉의 지혜는 그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부여된 권능처럼 보였고 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sup>6</sup>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거듭 주어지는 고난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 이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 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sup>4</sup> How p414

<sup>5</sup> NAC p403

<sup>6</sup> NIV 적용주석

2월18일

제목: 하나님의 큰 그림

먼저 보내셨나이다 /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 줄 요약: 형들에게 통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요셉의 눈물에는 분노가 아닌 감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때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감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생 베나민을 위해 종이 되겠다며 자신을 내어놓은 유다의 모습을 듣고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들과의 대화와 시험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총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요셉은 곁에 있는 애굽의 시종과 관리들을 모두 내보내고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누명으로 인한 감옥살이에서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셉의 감정이 기록된 유일한 부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토리의 전개로 형들은 너무 놀라 대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지난 날의 행동들 떠올리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눈물은 지난 힘들고 아프고 억울했던 시간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소된 감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으니 분노와 용서를 자연스럽게 뛰어 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5-8절)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형들의 질투와 어리석은 결정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며 하나님의 경영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되니 그의 개인사적인 감정이 그리 큰 문제처럼 와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막을 걸을 때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도는 지리를 파악하며 걷지만 나침반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의지하여 걷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비슷합니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아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헤세드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2월25일

제목: 타지 않는 떨기나무

모세를 부르심 / 이스라엘의 구원

한 줄 요약: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하신 사명 앞에 모세는 현실을 견주어 뒷걸음질을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전능하심으로 이루어가실것을 말씀하십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어느 덧 80세가 된 모세는 지금껏 양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 남은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불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부르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격으로 왕궁에 있었을 때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더 가까운 위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sup>7</sup>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생활을 하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권력이나 재력,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심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게 하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눈길을 끌 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지만 이러한 죄를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한 죄인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40년의 양자 생활, 광야에서 40년의 목자 생활을 하며 그의 의지대로 생활하던 방향을 마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순간입니다.<sup>8</sup>

불은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도 타지 않는 나무의 모습은 고난 중에서도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하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실 때 처럼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에게 맡기실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실 계획을 말씀해주시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장성한 여섯 족속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종살이 하는 것 밖에 답이 없는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연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1절에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질문하며 자신의 능력 없음을 변명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뒷걸음질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동기와 진행과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때론 우리의 능력과 현실을 견주어 현실가능성을 계산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한 계획도 없으시고 지키지 않으실 약속도 없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뒷걸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쫓대를 향한 달려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

<sup>7</sup> 박윤선박사 주석

<sup>8</sup> How